

시인의 마을

핑크빛 수다

시시를 담다



핑크빛 수다로 하루를 연다

목마르다, 목마르다

성깔 급한 고양이 검은 털이 뒤집힌다

줄기마다 모락모락, 달콤한 눈빛 머문다

넘치지 않는 향기로 다시 출렁인다

검은 고양이 두 마리가. 당치 큰 녀석이 먼저 눈에 들어 왔다. 눈 한 번 감았다. 작은 구멍을 통해 은근슬쩍 모습을 드러낸다. 이 둘의 관계가 궁금하다. 나를, 잔머리를 응색하게 굴러 본다. 친구, 가족, 섬, 연인, 부부일까, 아니면, 흑어, 불륜? 생각+생각 더하기에 빠져들어 간다. 카메라에 포착된 순간도 잠시다. 다정하게 황토색 낮은 지붕을 걷는다. 서로를 지긋이 바라본다. 한 쪽의 그림자. 황토(黃土) + 백(白) + 흑(黑)의 어우러짐이 멋지다.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고인 끝에 정리한 핵심 문장이다. /핑크빛 수다로 하루를 여는 검은 고양이/로 마침표를 찍는다.

녀석들이 걸어가면 그 길을 따라가 보자. 사뿐사뿐 가벼운 발걸음을 옮겨 보자. 담장 너머로 미소 짓는 정미, 파란 하늘, 맑은 공기와 부드러운 햇살에 눈이 부시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나에게 투자하자. 이들이 던지는 핑크빛 수다와 함께 달콤한 눈빛에 머물러 보자.



박여범

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사설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 가는 기대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오는 6월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주월드컵광장과 서신동 일원에서 '2022 꽃심,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 주제는 '지구를 살리는 정원, 정원이 혁신하는 지역'이다.

박람회는 ▲정원산업전 ▲전문·시민작가 정원 ▲마을공동체 정원 ▲정원문화 프로그램 ▲영화 상영 등으로 운영된다. 전주월드컵광장에서는 식물 소재 생산 농가와 업체, 비료·종묘·시설물 관련 업체 등 8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들은 판매 및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별도로 마련된 비즈니스 공간에서는 정원 소재 업체 간 정보 교류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전주월드컵광장에서는 정원 산업전 전시와 식물 소재 중심 생활정원, 분수정원, 비밀의 정원, 숲속의 정원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서신동 일대 공영에서는 기존 정형화된 공원 내에서 작가들이

다양한 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새로운 형태의 정원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정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전주의 아름다운 정원을 둘러보는 정원여행 ▲정원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정원 토크쇼 ▲정원과 연계된 요리 특강인 요리사의 정원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전주시는 박람회 주제인 '지구를 살리는 정원'을 위해 특별 이벤트도 실시한다. 화분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과 구멍 난 신발을 가져오면 화분을 만들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이번 박람회는 정원 식물·소품·시설물에 관심이 있거나 정원 가꾸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나 시민, 정원 디자이너에게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신종종의 식물 소재와 정원 소품·도구·자재 등을 다루는 업체들이 소통하는 산업전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운천 자랑스런 5.18광주인상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5.18 단체로부터 자랑스러운 5.18광주인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5.18 관련 법안 심사 및 통과에 앞장섰다.

특히 5.18 관련 사단법인의 공법단체화, 생계 보전금 및 보상법 등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는데 힘써온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앞두고 5.18 관련 4개 단체에서 감사의 의미를 전했다.

4개 단체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이다.

정운천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라며 "앞으로도 5.18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5.18정신을 국민 대통합 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

이날 함께 열린 간담회에서 단체들은 5.18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포함 및 개정에 대해 건의하기로 했다. 광주 서구와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건물 사용관리 전환 요청 및 광주지역 국책사업으로 K민주주의 연구원 건립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의 시민과 대학생들은 1980년 5월 18일부터 신군부의 민주화 운동 탄압에 맞섰다. 신군부는 공수 부대를 투입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발포까지 했다.

이에 대응하여 시위대는 21일부터 무장을 시작했다.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철수하면서 도청을 접수한 시위대는 시민 수습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계엄군은 27일 새벽 도청에서 저항하던 시민군을 전차까지 동원하여 무차별하게 진압하였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은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시진핑 "중국 개방의 문, 갈수록 커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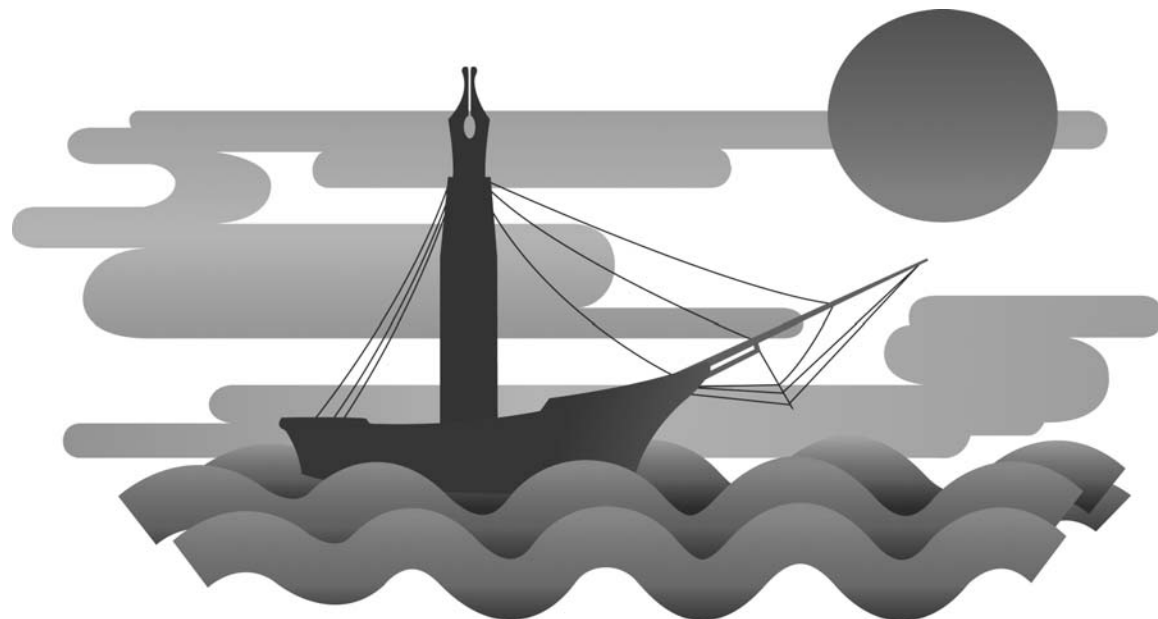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창립 70주년 및 세계무역투자촉진정상회의에서 회상 연설을 하고 있다.

포격으로 파괴된 아파트서 작업하는 구조대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바흐무트에서 구조대가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파괴된 아파트에서 작업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